

오 놀라우너라, 라쿠카라차

글 _ 김희정 · 대외협력과 · khj@kisti.re.kr

똑똑씨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35세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피름.

성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첫눈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들은 똑똑씨.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한다. 검고 영롱하게 빛나는 오톨스 반지를 낀 미모양의 가늘고 섬세한 손가락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 좀체 정신을 수습하기 힘든데. 그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송이송이 떨어져 내리는 함박눈!! 드디어 똑똑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미모양을 향해 전력질주 한다.

한 시간 뒤, 미모양 앞에 선 똑똑씨의 물결은 누가 봐도 감동할 만하다. 온 몸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젖어있고, 머리에는 하얀 눈이 빵가루 뿌린 듯 쌓여있고, 안경에는 허영계 김이 서러 눈동자는 보이지도 않고, 또 어찌나 열심히 달렸는지 막 썩넌 찢빵처럼 몸여기저기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똑똑씨의 지극히 순정파적인 모습에 미모양, 찌인한 감동으로 목소리까지 마구 떨린다. 두 사람의 대화, 불현듯 60년대 최고의 명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버전으로 바뀐다. 한껏 느끼해 진 두 사람.

“어머머, 똑똑씨. 왜 이렇게 젖은 거유. 차를 타고 오지 않구.”

“당신 향한 내 마음이 차보다 훨씬 빠르더군. 미모, 오늘따라 너무도 아름답소.”

“몰라 몰라.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나에게 미모의 그 하얀 손을 잡을 수 있는 영광을 주지 않겠어?”

갑자기 박력남으로 변신한 똑똑씨. 미모양의 손목을 화약 끌어당겨 타원형의 오톨스가 박혀있는 반지를 끼워준다.

“어머, 이게 뭐람? 웬 반지여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버전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만다. 타원형의 검정 반지가 맘에 안든 미모양.

“에게, 이게 뭐야. 바퀴벌레네? 이걸 반지라고 사 왔어요.”

미모양의 과히 심한 말에 실망과 동시에 격분을 느낀 똑똑씨.

“뭘 잘 모르고 무시하시는 모양인데, 바퀴벌레가 얼마나 대단한 곤충인지 알기나 해요? 3억5천만 년 전부터 지금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살아있는 화석' 이라고요. 물만 먹어도 24일을 생존하고, 또 못 먹는 것도 없어요. 종이, 가죽, 머리카락, 비누, 치약, 분드도 먹어요. 한번 생식하면 평생 알을 낳구요, 방시능도 어찌나 잘 견디는지 핵폭발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거라고요. 미모씨 분드 먹을 줄 알아요? 핵폭발 나도 살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바퀴벌레 무시해요?”





한 번 시작했다하면 절대 끊지 못하는 똑똑씨의 장광설이 또다시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다.

“순간 이동속도 시속 150km, 바퀴벌레의 감각기관이 정보를 인식해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은 겨우 천분에 1초라구요. 거기다 자기 몸의 몇 천배 높이에서 떨어져도 끄떡없이 살구요, 어찌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 바퀴벌레의 운동성을 본 판 ‘바퀴로

봇’ 까지 있어요. 이런 걸 생체모방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거미줄의 원리를 본 따 방탄복을 만들고, 전복껍데기를 본 따서 군용 탱크의 외피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은 미모양. 자신을 무시한 똑똑씨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어마어마한 장광설에 감탄하고 만다.

“저, 저기... 똑똑씨. 그걸 다 외웠어요? 꼭 녹음기 튼 거 같애. 어떻게 그렇게 줄줄 나와요? 바퀴벌레에 대해 아는 거 더 있어요? 알면 다 말해 봐요.”

미모양의 돌연한 반응에 갑자기 감이 빠진 똑똑씨.

“그..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거든요.”

“젯, 실망인데요.”

혼자서 박학다식함의 극치를 자랑하던 똑똑씨. 명석을 갈아주자 갑자기 입술이 붙어버린다. 그러나 잠시 후, 천둥치듯 그의 머리를 스친 단어가 있으니, 바로...

“라쿠카라차!”

“네? 라쿠카라차? 아... 그 노래!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요?”

“라쿠카라차가 스페인 말로 바퀴벌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부르던 그 노래를 우리말로 바꿔 부르면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름다운 그 얼굴. 바퀴벌레 바퀴벌레 희한하다 그 모습. 바퀴벌레 바퀴벌레 달이 떠올라 오면. 바퀴벌레 바퀴벌레 그림다 그 얼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하하...”

“뭐라구요? 하하하...”

하얀 눈 내리는 밤거리에서 배꼽이 빠져라 박장대소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한 쌍의 바퀴벌레 같다.

똑똑씨의 박학다식 장광설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안 먹혀도 미모양한테는 백발백중 효과를 발휘한다. 등딱지를 마주 댄 바퀴벌레 연인처럼 똑똑씨의 얇고 긴 품에 찰싹 달라붙은 미모양. 손가락에 끼워진 타원형 오톨스 반지를 더 없이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미모양의 목소리 다시 급격하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버전으로 변한다.

“똑똑씨, 어디서 이렇게 예쁜 반지를 구했수?”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지”

“아이, 몰라 몰라 몰라. 똑똑씨는 도둑, 내 마음을 훔쳐간 알미운 도둑!!”

“우리 미모, 그럼 아저씨랑 데이트나 한 번 할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이 몰라.”

하염없이 느끼한 한 쌍의 바퀴벌레. 하얀 함박눈 내리는 거리를 손가락이 부서져라 부여잡고 걷는다. 그리고 노래한다.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름다운 그 얼굴. 바퀴벌레 바퀴벌레 희한하다 그 모습...”

<똑똑씨의 박학다식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라쿠카라차가 스페인 말로 바퀴벌레 같아요

